신이 내린 재능 앞에 무릎꿇은 범재 '세기의 질투'

action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마데우스'

살리에리 지현준·한지상·이충주 모차르트 조정석·김재욱·성규 6인조 오케스트라 원곡 직접연주

연극 '아마데우스' 포스터 /클립서비스

연극 아마데우스 공연 사진 /클립서비스

창작극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작품이 등장했다.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입체적인 캐릭터, 화려한 무대, 아름다운 음악 선율까지 더해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연극 '아마데우스'다.

음악은 향한 갈망은 닮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극과 극을 이루며 살다간 신이 내린 능력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자신의 평범함을 고통스러워하는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가 화면이 아닌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이야기는 1985년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로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하다. 이 작품은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피터 셰퍼의 상상력으로 시작됐다. 영화 보다 앞선 1979년 영국 내셔널 씨어터 올리비에홀에서 초연된 '아마데우스'는 이듬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됐으며 1981년 토니어워즈 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0년 리바이벌 프러덕션 또한 54회 토니어워즈 리바이벌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기를 넘어서도 인정받는 명작의 힘을 보여줬다.

'아마데우스'가 많은 매니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한 예술가의 삶만 조명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음악가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예리한 갈등을 작품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 사이, 예술에 있어서 세간의 인정과 인기 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작품성과 흥행성까지 인정받은 '아마데우스'는 국내에서 이지나 연출 손에 의해 재탄생됐다. 이 연출은 "평범한 재능의 비애'를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치열한 드라마로 풀어내겠다. 원작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음악과 연주를 풍성하게 사용하겠다"고 연출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연극 '아마데우스'의 구조는 영화와 동일하다. 막이 오르면, 늙은 살리에리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살리에리가 처음 모차르트를 만난 곳은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이었다. 당시 살리에리는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과 품위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자신의 평범한 실력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모차르트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4살 때 처음 피아노를 쳤고 5살에 교향곡을,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했다. 그에 비에 살리에리는 당대에는 오랫동안 궁정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명성은 얻었지만, 그뿐이었다. 살리에리라는 인물은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 나온 이후 천재성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두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알려졌다.

어쨌든 이 작품의 화자는 살리에리다. 살리에리의 기억이 모아져 극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만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살리에리를 연기하는 주인공의 힘은 대단하다.

존경받는 음악가였지만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인정, 경이로움, 그리고 질투와 번민을 동시에 느끼는 살리에리 역에는 지현준, 한지상, 이충주가 캐스팅됐다.

긴 대사를 거침없이 소화하는 것은물론, 궁정작곡가라는 위엄과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적절히 잘 버무린다.

그리고 특유의 웃음소리, 천부적인 재능과 방탕한 사생활을 오가는 세기의 캐릭터 모차르트는 조정석, 김재욱, 성규가 맡아 열연한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종횡무진 활약한 조정석의 7년만에 연극 무대 복귀는 팬들의 기대감이 높인다. 연기라면 뒤지지 않는 세 배우의 각기 다른 색의 모차르트를 기대해도 좋다.

연극 '아마데우스'가 특별한 이유는 배우의 연기와 스토리때문만은 아니다. 귀를 호강시켜줄 20여곡이 공연 내내 흘러나온다.

20인조 오케스트라의 MR을 사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무대 위에는 6인조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직접 연주하며 모차르트의 원곡 느낌을 살려낸다. 뮤지컬이 아님에도 창작 넘버가 삽입돼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게다가 직접 피아노 연주까지 하니 눈을 뗄 수가 없다.

여기에 나레이션 역할을 맡아 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작은 바람들' 캐릭터는 각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다양한 안무로 음악을 표현해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연극보다 특별한 연극 '아마데우스'는 4월 2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만날 수 있다.

최정 9단, '센코컵' 초대 챔피언 도전

오늘부터 여류최강전 출전

최정 9단 /한국기원

최정 9단이 센코컵 초대 챔피언에 도전한다.

최정 9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 일본기원에서 열리는 '센코컵 월드바둑여류최강전2018'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랭킹 1위 최 9단과 중국 랭킹 1위 위즈잉 6단을 비롯해 주최국 일본의 셰이민 6단, 무카이 치아키 5단, 후지사와 리나 3단, 뉴에이코 2단 등 4명이 출전한다. 일본 선수 4명은 자국 여자기전인 2회 센코배 여류최강전 4강 진출자다. 이와 함께 대만의 헤이자자 7단과 유럽의 나탈리아 코발레바 아마 5단이 나선다.

지난 1월 입신 등극 후 첫 세계대회에 나서는 최정 9단은 지난해 국제무대 싹쓸이 우승의 기세를 이어 다시 한번 세계 무대 여제(女帝) 임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김민서 기자

"흩날리는 벚꽃잎이~" 어김없이 돌아온 봄캐롤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차트 진입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차트에 진입했다. 봄 기운이 겨울 바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 곡은 매년 이맘 때쯤이면 어김없이 차트에 등장한다. '벚꽃 좀비',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벚꽃 엔딩'이 차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달 초다. 지난 3일 음원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 83위에 첫 진입했으며, 13일 오후 1시 기준 79위까지 올랐다.

이 곡이 발매된 것은 지난 2012년 3월 29일이다. 발매 후 6년이 지났지만 매년 봄마다 차트 역주행을 달리며 대표적인 '봄 캐롤'로 자리매김 했다.

'벚꽃 엔딩'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년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동시에 최상위권까지 오르는 유일무이한 곡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발매 된 곡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차트 최상위권까지 진입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또한 계절이나 특정 기념일을 겨냥한 곡도 차트 진입 이후의 성적은 '순항' 정도가 성공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벚꽃 엔딩'과 함께 매년 봄이면 차트에 등장하는 곡들도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 하이포-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말고', 딕펑스의 'VIVA 청춘', 십센치의 '봄이 좋냐?' 등이 대표적이지만, 순위 경쟁만 놓고 봤을 때 '벚꽃 엔딩'의 적수는 아니다.

어느새 일곱 번째 봄을 맞이한 '벚꽃 엔딩'. 이 곡이 차트에 진입하면 봄이 시작된다는 말도 있다.

봄의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한 이 곡이 올해는 또 어떤 성적을 새로 쓸지 기대를 모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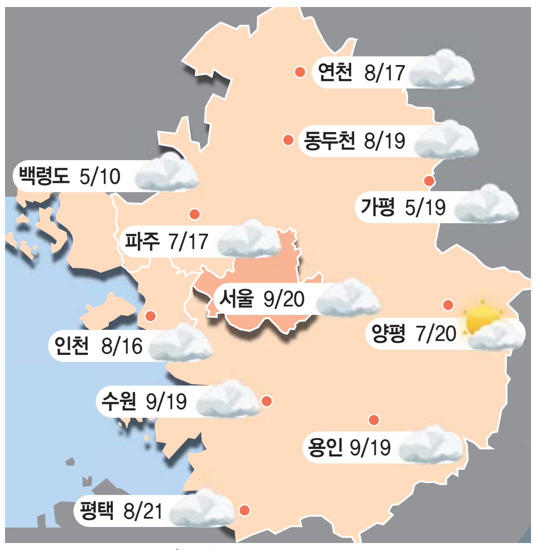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5 | 해짐 / 18:38

3월 14일 음력 :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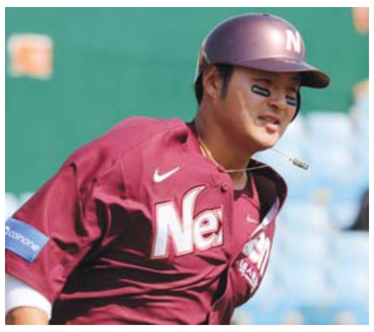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9 ~ 20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박병호(넥센 히어로즈)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 한화 이글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출전해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왕'의 복귀를 알렸다.

▲ 손아섭(롯데 자이언츠)이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 LG 트윈스와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솔로포를 터뜨렸다. 이날 개막한 시범경기의 1호 홈런이다.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내주 세계랭킹에서 24위에 오른다. 이로써 니시코리 게이(일본)를 제치고 '아시안 톱 랭커'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선수 역대 최고 랭킹이다.

▲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출전해 2타수 1안타 2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364(22타수 8안타), 출루율은 0.500까지 올라갔다.

▲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1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최우수선수(MVP)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주 DB 두경민, 안양 KGC인삼공사 오세근, 전주 KCC 이정현의 삼파전 양상이다.

▲ 박성현, 전인지, 고진영 등이 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첫 미국 본토 대회인 파운더스컵에 출격한다. 박인비, 미셸 위 등도 우승 도전장을 내민다.